

기업 발길질에 성장엔진 멈출 판



김문호의 단상

미국의 무차별적 통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개발 비용만 최소 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1970년대 처음 논의된 이래 경제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됐던 장기 공전 사업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결정된 것은 없다지만, 트럼프의 “한국이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라는 말 한마디는 한국 기업 처지에서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 실체를 드러낸 것은 처음도 아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달 21일(현지시간) 최대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사절단을 면담할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미 행정부의 ‘패스트 트랙’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조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돼야 미국 정부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미국에서 장사하기가 갈수록 팍팍해질 것이라 말로 들린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기업 경영에 치명적일 정도로 과격한 반기업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도 다시 발의 됐다. 이들 법안이 실현되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은 쉬워지고, 기업 경영진은 남발하는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경영 분쟁에 시달리는 일이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환경·안전 규제는 또 어떤가. 기업들의 숨통을 죄다. 제조업체 최고경영자 A씨는 “기업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수천 개의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적대적인 경영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중단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기업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위로 탄핵과 트럼프 충격이 덮쳐 산업 전반이 생사기role 놓였

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등 전방위로 기업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도 줄줄이 대기 중인 반기업 규제 법안들까지 하나둘씩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경제의 엔진을 멈춰 서게 만들 것이다.

괜한 엄살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악화된 환경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재화소비를 뜻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12월(0.2%)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비 투자도 전달보다 14.2% 빠졌다.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줄어든 여파가 컸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도 실업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정치권은 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부장 kmh@metroseoul.co.kr

소비자는 비싸게, 산업은 위축... 누굴 위한 주세법인가



김수정 기자

국내 주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주류에 종량세(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종가세(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를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는 제품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류를 생산할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급 주류는 원료비와 숙성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종가세 체계에서는 이러한 생산 비용 증가가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면

서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는 출고가의 30%,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에는 출고가의 72%가 주세로 부과되며, 여기에 교육세(30%)와 부가가치세(10%)가 추가로 가산된다. 그 결과 위스키, 프리미엄 소주, 전통주 등 고급 주류일수록 소비자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 활성화에 제약이 걸린다.

2019년 맥주에 종량세가 도입된 이후 수제맥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위스키나 지역 특산주는 여전히 높은 세율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위스키 업계는 주세법이 지난 35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만큼 증류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만 유독 비싼 세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주류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종량세 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석식 소주의 가격 상승 가능성 때문이다. 소주는 대중적인 주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위스키 제품이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해외에서 원정 구매 후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류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 현행 주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tree6834@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21일) http://www.saju4000.com

- 37년생** 웃지 않으려면 장사를 접어라. **49년생** 독단적인 처리가 발목을 잡는다. **61년생**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73년생** 마음을 경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보라. **85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된다.
- 38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버려두지 곤란을 겪는다. **50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62년생** 부지런하다 보면 작게라도 이룬다. **74년생** 동시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 **86년생** 기죽지 말고 가슴을 펴고 살라.
- 39년생** 결혼은 돌이키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길. **51년생** 조상제사에 꼭 참석해야. **63년생** 하나를 얻으려고 셋을 포기하는 격. **75년생** 고인 물은 흘러보내야 썩지 않는다. **87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 40년생** 친척과의 대화가 근심을 가져온다. **5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64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76년생** 고양이 묘두현령(貓頭懸鈴)을 누가 할 것인가. **88년생** 거짓말로 변명거리가 필요.
- 41년생** 가난뱅이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없을 것. **53년생** 향기 없는 꽃에 속지 마라. **65년생** 영토가 넓어야 힘이 세듯 주시보다는 부동산을. **77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라. **89년생**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렵지 않다.
- 42년생** 휴식이 없는 인생이 서글프다. **5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에 차라. **66년생** 헛된 욕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78년생**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니 실력을 키워라. **90년생** 앞만 달린 것이 빠진 것처럼 일이 계속 풀린다.
- 43년생** 새 소식이 문전에서 바로 온다. **55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자기 주변부터 살피라. **67년생** 물이 들어오니 노를 할것 저러라. **79년생**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길이 보인다. **91년생** 정치에 관심 말고 경제에 신경을 쓰라.
- 4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56년생** 시험장소는 정동 쪽만 피하고 움직여보라. **6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80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92년생** 현실을 각성해야 발전이 되니.
- 45년생** 비현실의 잠에서 깨어나 보도록. **57년생** 날이 항상 맑지만 비리지 마라. **69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81년생**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난다. **93년생** 잔소리를 하기보다 마음을 편하게.
- 46년생** 거창한 구호에 속지 않도록 해야. **58년생** 오랜 적선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70년생** 세상에 나쁘지만 한 일은 없다. **8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이다. **94년생** 젊은 나이 들어 싸우든 힘이 있으면 피해를 보지 않는다.
- 47년생** 거짓말 없는 인생이 과연 있거나 할까. **59년생** 작지만, 친구에게 우정의 선물을 주어보라. **71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83년생** 버릴 수 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95년생** 산다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만.

김상회의四季 세상을 밝히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불교에서는 세상을 일러 욕계(慾界)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탐내고 욕심을 내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가 난다. 그러니 탐심에는 화를 내는 진심(眞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한다. 화내고 욕심을 내는 데는 바른 지혜가 없어서이니 당연히 어리석음인 치심(癡心)이 함께한다.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탐치지 삼독으로 돌아가는 오락 약세 욕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화로 버무려진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얘기한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가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아가페적 사랑을 설명한다. 사랑 전도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을 밀고한 유다까지도 긍휼히 여긴 분이다. 또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면 배반한 베드로까지도 연민의 마음을 낸 분이다. 기독교의 대표 가치인 ‘사랑’에 대비되는 불교 실천의 대명사는 자애와 자비이다. 여기에는 사랑이 함께 하는 연민도 포함이 된다.

초기 불교 경전과 숫타니파타에는 ‘자애경’이 있다. 그 내용 중에도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으로 보호하듯이...” 라는 표현이 나온다.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애경에 나오는 구절 중 또 한 대목을 인용해보자면, “모든 세상을 향해, 위 아래 그리고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의 없이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깨어 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거룩한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반반으로 나뉜 국민의 마음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책 출간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6	2	7	8	9	8	7
2	7	8	9	6	1	8	9	
9	8	7	9	1	6	2	2	
1	2	9	9	6	8	7	2	
8	9	2	9	1	7	8	6	2
7	6	8	2	8	2	9	9	1
6	7	1	8	2	9	2	9	8
8	9	9	6	7	2	2	1	9
2	9	2	1	8	9	8	7	6

1	9	6	7	2	2	9	8	8
2	8	2	6	8	9	7	1	9
9	7	8	9	1	8	2	2	6
9	8	7	2	9	1	2	6	8
8	6	2	8	9	7	1	2	9
2	9	1	2	8	6	9	8	7
8	1	9	8	7	2	6	9	2
6	2	9	2	8	8	7	1	9
7	2	8	1	6	9	8	9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73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